

물·공기좋은 영월의 선물... '100% 사골곰탕' 승부수

메트로가 만난 기업 BJ푸드 김성희 대표

시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우의 고장인 강원도 영월 주천에서 한우, 한돈을 활용해 사골곰탕 등 국산 가공식품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 엄마와 아들이 있다.

비제이푸드유한회사(BJ푸드) 김성희 대표와 아들 강동원 과장이 있다. BJ푸드가 자리잡고 있는 주천면은 '다하누'로 잘 알려진 국내의 대표적인 한우 명소 중 한 곳이다.

김 대표의 시아버지이자 강 과장의 할아버지인 고 강봉조 회장은 한 때 중소기업계 육가공식품 분야에서 꽤 명성을 날렸던 인물이다. BJ푸드란 사명은 자연이 키워주는 양질의 국산 식자재를 활용해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의지에서 만든 '베스트조인(Best Join)'이란 영문과 선친의 이름에서 따 왔다.

김 대표가 물 좋고 공기좋은 청정지역인 이곳 주천에 자리를 잡은 것은 무엇보다 BJ푸드의 주력 제품인 사골곰

탕, 꼬리곰탕, 삼계탕 등의 주재료, 부재료를 찾기가 수월해서다. BJ푸드 공장 인근으로는 영월 동강과 만나는 주천강이 흐르고 있다.

김 대표는 "다하누가 워낙 한우로 잘 알려져 있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는데다 한돈은 인근 원주에 있는 돼지문화원을 통해 공급받고 있어 주변에 원재료가 풍부하다"면서 "계다가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옥수수, 감자, 벌나무 등을 활용해 건강을 위한 '헬스푸드'를 개발할 기회도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주제품인 탕류 외에도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공동개발도 모색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로 제품을 만들어 농가소득도 높이고, 또 지역의 대학과 산학연을 통해 공동활로를 개척해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엔헬스푸드를 찾는 층이 넓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BJ푸드의 전공은 뭉치니해도 소, 돼지, 닭 등을 활용한 탕류다.

이들 제품 생산을 위해 BJ푸드는 해썬(HACCP)이라고도 불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 인증까지 받았다.

공장은 뼈 핏물 제거, 지방 추출, 전통 가마솥과 같은 가압추출방식을 활용한 국물 만들기, 자동포장 등의 시스템을 완비해 하루 20톤(t)은 거뜬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김 대표는 "주변 지역에서 이 정도의 설비를 보유한 공장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웃음)"면서 "지난 설에는 '한우 100%' 사골곰탕 5000개 세트가 모두 팔려나가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BJ푸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풍물을 비롯해 강원도청의 온라인몰 '강원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선풍몰'을 찾아도



7월부터는 100% 국산 재료를 쓴 삼계탕도 본격 선보인다.

김 대표는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뿐만 아니라 찹쌀(강원도 원주), 대추(경북 경산), 간밤(충남 공주), 마늘(경북 의성), 수삼(경기 안성) 등도 전국 곳곳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팔도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발이

대만에 삼계탕 샘플을 보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우리 기술로 만든 삼계탕이 현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날도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계탕은 오는 7월부터 홈앤쇼핑을, 유향오리백숙은 CJ오쇼핑과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도 고객들에게 찾아간다.

"기업은 사장과 직원들의 행복도가 같아야 오래갈 수 있다. 특히 지역에 있다 보니 회사가 주는 월급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같은 회사를 만들어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 대표가 아들 강 과장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강 과장은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해 이론에선 오히려 김 대표보다 밝다.

BJ푸드는 지난 5월8일 아버지날엔 주천면에서 연 경로잔치에 사골곰탕을 기부해 지역 어르신들이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식품가공업을 시작한 것이 시아버지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고인의 모습이 생각나 주변의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고 싶어하였다.

육가공 분야 명성 시아버지 영향받아 대량 생산공장 마련
국산 소·돼지·닭 등 활용 탕류, 각종 헬스푸드도 개발
온라인·TV홈쇼핑 넘어 일본·동남아 등까지 활로개척



된다. 특히 선풍몰은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도 공동 판매해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도라지생강청, 인진쑥환, 느릅나무유근피환, 햇개나무, 야관문, 취나물, 곤드레, 메밀국수 등이 대표적이다.

끝나 생산에 막 들어간 '유향오리백숙'도 국내산 한약재 20여 가지를 쓴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재료는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전량 공급받고 있다.

특히 삼계탕은 해외수출을 위한 인증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비제이푸드 김성희 대표(왼쪽)와 아들 강동원 과장이 강원도 영월 주천에 있는 본사 로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강원 영월=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마트공장' 확산 위해 노·사·정 뭉쳤다

중기부, 6개 기관과 업무협약
근무여건 개선해 고용 안정 도모
사람 중심 모범사례 도출에 협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온 스마트공장 도입을 노동자·사용자·정부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노동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등 사람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협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6개 기관과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3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왼쪽에서 세번째부터)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7개 기관 기관장들이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한민 기자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31일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선정을 계기로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배한민 기자 ericabae1683@

중소 대부분 1분기 수출길 막혀 내수보강 '추경' 조속 통과 절실

중기중앙회 '중소 애로현황 조사'
80.3%, 수출 전년과 비슷·감소세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올 1·4분기 수출이 줄었거나 제자리 걸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편성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4~28일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최근 대외수출환경 관련 중소기업 애로현황 조사'를 실시해 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답변(심각하게 감소+다소 감소)은 37%로 나타났다. 전년과 큰 변동이 없다는 의미의 '보통'은 43.3%였다. 응답자의 80.3%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답한 것이다. '증가'(다소 증가+매우 증가)는 19.7% 수준이었다.

수출과 내수 보강 등을 위해 1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6조 7000억원으로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66%가 '도움된다'고 답했다. '도움 안된다'는 27.3%, '영향없다'는 6.7%였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64%가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꼽은 수출 애로 요인은 '해외진출 정보 및 기회 미흡'이 26.3%로 가장 많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시장 위축'(23.0%), '인력·금융조달 애로'(2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김경만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환율 변동 등 대외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시성 있는 경기 대응을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이 담긴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